

제4호

발행일: 서기 2011년 9월 1일(목)
창간일: 서기 2010년 3월 1일
구독신청: (043) 218-2158
FAX: (043) 212-2158
H.P: 016-482-3158

安東金氏 按廉使公派宗會報

발행인: 김태문
편집인: 김재성
발행처: 안동김씨안렴사공파종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 2-3
인쇄인: 김성희

인사말씀



안렴사공파종회장 김태문

존경하는 공인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예고없는 폭우, 연이은 폭염에 건강에 유의 하셨는지요. 어느덧 가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원군 남이면 팔봉리 민속공사적비 건립과 서산 독립유공자 김정독선생(仁倉)묘소비 제막식과 수도권공회장 關兌堂 태종시 功績碑 건립을 추진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동김씨는 충과 효로 忠孝世守(대대로 전하여 지켜오는 집안)로 명문대가(名文大家)임을 자부합니다.

머지 않아 秋祭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렴사공 할아버지의 조부

이신 정간공(貞簡公) 휘 영후(永熙) 할아버지 위선사업도 계획에 따라 잘 진행중이고 있습니다. 제막식은 안렴사공 시제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공인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선사업이란 사심(私心)을 버리고 봉사해야 덕을 쌓고 덕을 쌓으면 가정이 평안하며 이는 조상의 음덕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단년 가을 시제에는 많이 참석하시어 종친간의 친목은 물론이요 조상의 위업을 길이 찬양하는 것이 자손 권 도리라 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9일 상임부회장 홍희씨 장례에 참여하신 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일기 고르지 못한 황절기에 각 가정에서 행운과 건강이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9월 1일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종회장
김태문 올림

송천서원 춘계제향



지난 4월 22일 11시 충북청원군 오창읍 소재 송천서원에서 송천서원 춘계제례가 많은 후손과 일반 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숙하게 거행되었다.

이종윤(李鍾潤)청원군수가 초헌관으로 물러진 이날 제례는 아헌관

에 이종현(李鍾顯)유도회 참주지부장, 종현관에 윤중현(尹重鉉) 유림이었다. 송천서원은 안렴사공(諱 士廉)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15년의 청주지방 선현을 모신 서원으로 해마다 유림과 배향문중에서 제향을 올린다. 「대한희망 재공」

享祀日程表

Table with 4 columns: 시제대상 (Ancestor Name), 시제일 (Date), 장소 (Location), 연락처 (Contact Info). Lists various ancestral rites across different dates and locations.

제3회 안동김씨 전국 청·장년회 체육대회 개최 공고

- 안동김씨 전국 청·장년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오니 지역 종친회별로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일시 : 2011년 10월 8일(토요일) 오전 10:00부터
2. 장소 : 충령공업고등학교 교정(충북 충령군 충령읍소재)
3. 주최 : 안동김씨대종회
4. 주관 : 충령종친회 청·장년회 (회장: 김태복010-548-1345)
5. 내용 : 배구(9인제), 400m릴레이
6. 대회참가신청 : 2011년 9월 20일까지 대종회로 신청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령종친회 청·장년회 김태복(010-548-2904)에 문의
「안동김씨대종회」

안렴사공파종회 각종성금 입금계좌 안내

안렴사공파종회에 각종성금 찬조금, 회보협찬금 납입 계좌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2-1239-7308-0
예금주: 김태문(안렴사공)
회보성금 10만원(약회 오창)

칠세칠충략전(七世七忠略傳)

안렴사공파에는 칠세칠충이 계시니 충렬공 휘 방경 안동김씨 증시조, 문영공 휘 순, 정간공 휘 영후, 영삼사공 휘 천, 안렴사공 휘 사림, 소윤공 휘 약, 지주사공 휘 우주 일곱분은 고려 충신으로 전칠세칠충이며 화산군 휘 주, 민숙공 휘 인, 참판공 휘 세달, 예조참판공 휘 천주, 이조참판공 휘 천장, 장사랑공 휘 성추, 장사랑공 휘 성욱 일곱분은 조선조 충신으로 후칠세칠충이라 한다.

위 내용은 고종지에 기록된 내용으로 여러번에 나누어 게재하고자 합니다. 고종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수정하지 아니 하고 게재 합니다(편집자)

一. 충렬공 김방경 약전(忠烈公金方慶略傳)



충렬공 김방경 약전

김방경의 자(字)는 본연(本然)이며 시호는 충렬이요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경순왕의 제 4자 은열(殷說)의 성손(姓孫) 효인(孝印)의 장남(長男)이다. 송나라 가정(嘉定) 5년 고려 감종원효왕(高麗 康宗元孝王) 원년 서기 1212년 임신(壬申)에 출생하여 고종, 원종, 충렬, 3조의 왕을 섬기며 내란을 평정하고 진도와 탐라의 난을 진압한 큰공을 세워 1274년에 상주국 판어사대사(上柱國判師使)의 벼슬을 받았고 이듬해 원나라의 관제와 상륙되어 광중대부 천의중찬 상장군 판정리감할사사(匡靖大夫 兼中贊 上將軍 判典理監察司)로 관직을 고쳐 받았다. 원조로부터 중흥대부 관고려군 정동도원수(中興大夫 管高麗軍征東都元帥)를 선수(宣授)받고 명에 따라 두 번이나 일본을 정벌하였다. 본조(本朝)에서 추증 정난정임공신 삼중대광도천의중찬 판정리사사 세자사(推忠 靖難定遠功臣 三重大匡都承議中贊 判典理司事 世子師)관직을 받으시고 치사(致仕)하였다. 그후 1295년 을미(乙未)에 상락군 개국공을 봉하고 1千호의 녹봉을 받았다. 실봉은 3百호 녹봉이었다. 1300년(원나라 성종 대덕 4년) 무오(戊午)에 89세로 별세하였다. 고려 충신왕이 선종현묘 정난정국공신 백상삼한 삼중대광(宣法協贊 定難靖國功臣 獻上三韓 三重大匡)으로 추봉하고 시호(諡號)를 충렬(忠烈)이라 하고 신도비를 세우도록 명하였다.

사적이 형장 및 역사열전에 실려

있다. 송의전(崇義殿)에 배향(配享)하고 불계서원(勿溪書院)에 주향(主享)했다. 산소는 안동군 녹전면 죽송동 능동 윤좌원(乙坐原)에 있으며 묘갈문은 이시발(李時發)이 지었고 신도비는 안동군 녹전면 구송동 산 117번지에 서있고 유허(遺墟)는 안동군 증산을 회곽동에 보존(保存)되어 있다. 배위 냉평국대부인(冷平國大夫夫人)곽주박씨 설단묘(묘소실전)는 유허비 후쪽에 있다. 三國(본국, 원나라, 몽고)을 무상출입하는 장군으로서 외구(外寇)를 치고 내란을 평정한 임공정국공신(遠功靖國功臣)이시며 동방영국에 명성을 날린 어른이다.

■ 치사(致仕)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사양하는 것을 말하며 단상관이 치사한 경우 예조(禮曹)에서 매월 고기와 술을 급여하였으며 중대한 국사로 인하여 七十이 넘도록 치사를 못한 경우 一품관에게는 안식계와 지팡이(几杖)를 하사하였다.

二 문영공 순 약전(文英公 尙路傳)

문영공은 충렬공의 3자로 이름은 순(尙)이고 자는 귀후(歸厚)로 1258년(고려고종 45년 무오(戊午)에 출생하여 1279년 고려 충렬왕 5년 기묘(己卯) 문과에 급제하여 그 이듬해 1280년 중시(重試)에 합격되어 낭장(郎將)으로 학사직감으로 옮겼다. 부친 충렬공께서 일본을 칠때 종군하고 돌아와서 전중시어사(殿中侍御使)로 여러번 옮기어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사직하니 충선왕이 기용하여 중대공(重大匡)상락군(上洛君)으로 삼았고 1321년(고려 충숙왕 8년) 관삼사(判三司)를 배수하고 그해 8월 24일 임술(壬戌)에 壽 64세로 별세하였다. 시호를 문영(文英)이라 하사하였다. 공께서 예서를 잘 쓰시고 성품이 관후하였다. 산소를 실전하였다가 1942년 계동군 구산에서 지식을 얻어 묘소를 발현하여 그 이듬해인 1943년 봄에 안임을 관양동 후산(後山) 간좌언덕으로 변봉하였다.



(문영공 묘소 전경)

좌랑공(諱 湜) 소개



▲ 좌랑공 묘(영동 황간 회포리)

공의 휘(諱)는 식(湜)이며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다. 고려 천의중찬 삼태군개국공 식음1천호 식실봉3백호 시호 충렬(忠烈) 방경(方慶, 1212-1300)은 경순왕 15세손으로 공의 5대조이며, 고조는 판삼사사 상락군 시호 문영(文英) 순(尙, 1258-1321), 증조는 좌정승 우정승 상락후 박첨부임군 시호 정간(貞幹) 영후(永後, 1282-1361), 조부는 밀직부

사 증 영삼사사 상락군 천(天)이다.

아버지는 과거급제(공민왕 초) 비서감(1358) 안렴사(고려 말) 사림(士廉)이며, 어머니 죽계부인 순흥안씨는 인원승의 딸이다. 흥부당(1365) 판서 사림(士廉)은 백부이며, 전라도관찰사 시호 충강(忠康) 사인(士安, ?-1391), 좌정승 조선개국공신 시호 익원(翼元) 사형(士衡, 1341-1407, 수67)은 숙부이다.

공은 6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백형 간(侃)은 호군(1380) 안찰사, 인비(仁比)는 출가, 위(維)는 정랑, 제(濟)는 국자감시 급제(1377) 예부시 급제(1382) 도절제, 약(濼)은 소윤을 역임했다.

아버지(휘 士廉)께서 역성혁명 조선개국사에 불사이군하여 오근촌에 은둔하여 여생을 보내다 별세하

실 때 유명령종 이조분사 유언에 따라 자손들도 벼슬을 버리고 오근촌 일대에 낙향한 것으로 보인다.

공은 문과 급제(1393 조선태조계유) 형이조좌랑을 역임하였으나 아버지(휘 士廉)의 이조분사 유언에 따라 벼슬에서 물러나 진천 문택 막동(막갈 혹은 마옥이라 부르고 옥돌을 갈고 닦아 장신구를 만들던 곳으로 삼승지라 전해오고 있음)에 은둔하여 학문으로 여생을 보내시며 문하에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부인 상산부인 진천송씨는 진서송공우(宋廷佑)의 딸로 3남 6녀를 낳았다. 장남 자려(自麗)는 승훈당 직장, 자형(自刑)은 사직서령을 역임했다.

공은 선친의 유명령종 유언을 받아들여 진안 동면 수남리 금차봉에 경종되어 묘가 실전되었다가 100여년 후 지식을 발견하여 묘를 찾았다. 아들 자려(自麗), 자형(自刑)의 묘

도 이곳에 있었다. 1997년 공의 묘와 아들 자려(自麗) 묘는 영동 황간면 회포리 구미촌 손자 국(國)의 묘상단으로 이안하였고, 아들 자형(自刑) 묘는 증평 남하리에 실안하였다.

손자는 여덟인데 봉훈당 대구군수 영동 입향조 국(國)의 후손은 영동 황간 회포리에, 문종조(1451-1452) 생원 진천현감 진천 입향조 린(麟)의 후손은 진천 사서리, 장판리, 건승리에 세거하고 있고, 증손자 원손(元孫)의 배위는 영의정 권중화(1322-1408)의 증손녀이다. 현감려의 후손은 영동 추풍령 아대 세거하였고, 려의 외손자 진평령(1480-1560)은 상주목사를 역임했다. 손자 돈녕부 참봉 증평 입향조 규(圭)의 후손은 증평 죽리, 남하리 일대에 세거하고 있다.

『좌랑공 회갑 재흥재공』

민숙공(愍肅公)사적비 제막



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에 등용된 뒤 폐모론에 가담하지 않아 7.8년 뒤 거주 봉상시주부(奉喪侍主簿)에 머물렀다. 인조반정 후 부인원감, 예조정랑, 성균관사에, 예빈사정, 장악원정 등을 역임하고 1628

년(인조6)에 영천군수를 거쳐 성천부사가 되었다. 1638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성천부사로서 흩어진 관병을 징발하여 관찰사 홍경구에게 예속시키고 의병을 모집하여 적의 진로를 막고 항거하다가 전사하였다. 그 뒤 홍경구의 아들 증보(重普)의 주선으로 조정에서는 이조관서를 추증하고 정려문을 세웠다. 그러나 현종때 하적(許積)이 성천부사를 지낼때 공의 행적이 모호하다고 하여 정표(旌表)를 함수하였다. 1680년(숙종6)에 하적이 처형된뒤 아들 세보(世輔)를 삼형제의 상소로 다시 정표문제가 제기되어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민숙(愍肅)이다.

『재실과종회 총무제공』

인렴사공의 5대손 현명공(顯暉)의 현손 성천부사공(愍左贊成諱 瑄)공경에서는 지난 8월 28일 충북 청원군 남이면 필봉리에서 인렴사공파종회 재태고문, 태문회장, 재성사부극장과 자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고유제를 올리고 사적비 개막 행사를 가졌다. 친회 총경회장은 여러곳에 되서진 선대의 묘소를 이곳으로 이양하고 이반에 사적비를 세웠다.

◆ 천하를 경영하는 9가지 원칙(中庸)

- 첫째 수신(修身) 천하를 경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수양하라!
- 둘째 존연(尊賢) 능력이 있는 인재를 우대하라!
- 셋째 친친(親親) 친척들을 소중히 여겨라!
- 넷째 대신(敬大臣) 대신을 공경하라! 경대신!
- 다섯째 체근신(體群臣) 여러 신하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
- 여섯째 자서민아(子孫民也) 서민들을 내 자식처럼 여겨라!
- 일곱째 태백공(來百工) 기술자들을 초청하라!
- 여덟째 유인인(與德人) 덕 있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라!)
- 아홉째 회제후(懷濟侯) 이웃나라 제후들을 잘 끌어 주어라!

◆ 조직을 망치는 리더의 5가지 실수(손자병법)

- 첫째 필사가십이(必死可殺也) 죽기만을 각오하는 장군은 적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
- 둘째 필생기르이(必生可虜也) 살기만을 생각하며 싸우는 장군은 적에게 포로로 잡힐 수 있다.

- 셋째 빈속가모이(忿速可侮也) 분노를 못이겨 재촉하는 장군은 수모를 당할 수 있다.
- 넷째 엄결가욕이(嚴整可嘩也) 절제와 고귀함만을 고집하는 장군은 치욕을 당할 수 있다.
- 다섯째 애민가변이(愛民可傾也) 병사들을 너무 아끼는 장군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 족보토막상식

벼슬명 앞에 붙은 행과 수(守)
행(行)은 行職으로 관원의 관직이 품계와 상등(相等)하거나 품계보다 낮은 때에는 行職이라 하고 수직은 그 반대되는 용어로 품계보다 높은 때에는 수직이라 한다.
이조좌랑(史書佐郎) : 좌랑은 국가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6부관청 즉 吏曹, 戶曹, 禮曹, 兵曹, 刑曹, 工曹 중 吏曹에 속한 관직으로 이 6부에서 관리의 1인명, 공훈, 봉작등을 총괄하고 품계가 正五品의 正郎과 正六品의 正郎을 합쳐 正郎이라 칭하고 전방은

이조에서도 막대한 권한을 갖고 인사행정의 실무기안자로서 吏曹에서 名望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으며 이들의 任免은 吏曹判書도 관여하지 못하고 尙書 자신이 취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방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대체로 재상까지 오를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이와 같이 전방은 복수관직으로 조선때 관리의 전방에 정랑과 좌랑이 많은 관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김 이름이다. 『재흥 좌랑공 종회장 제공』

독립유공자 김정득 선생 추념비 건립 제막



지난 7월 21일(목요일) 오전 11시 충남 서산시 북서면 '독립유공자 김정득 선생 추념비 건립위원회(위원장 리찬구)에서는 30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안동김씨 김정득(金丁得) 죽보명 김인회)선생 추념비 건립 제막행사를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병영육 건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과보고, 리찬구 위원장의 추념사, 유족대표 김태봉의 답사, 유상근 서산 시장과 김한성 서산시 의회 의장의 축사와 제막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날 제막행사에는 대동회 태운사부총장, 태운 인렴사공파종회 회장 등 총인 40여 명이 참석하여 제막행사를 축하하였다.

독립유공자 김정득 선생은 인렴사공파 군자간정공 자손으로 병자호란 당시 성천부사로 작에게 항복하지 않고 모병과 군함을 조달하다 다음 해 정월 화를 당한 증 이조관서이며

왕명 정려문을 하사 받은 시호 민숙공 휘 인(愍 愍肅公 諱 王宮)의 7대 장孫으로 만세운동 당시 20세였고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 가장 어린 나이로 주병이 되어 "살아서는 살 곳이 없고 죽어서는 물일 땅도 없다. 이 원수를 갚지 않고 어찌할까! 각인은 일심동체 힘을 다하여 불구대천(不救戴天)의 원수를 갚아 내 나라를 독립하자"고 일제 서서 만세를 높이 외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태90도(가죽을 찢어서 만든 긴 끈으로 90번 때리는 것)등의 고초를 겪었고 그 후유증으로 광생을 판치 않은 여생을 보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1971년 72세로 생을 마쳤다. 사후 재판 기록 등이 밝혀져 2010년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추서되고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어 서산시 북서면민의 이름으로 추념비를 세운 것이다.

『서산시 태안군 종친회장 김종희 제공』

金丁得 先生 追念碑

공의 휘는 丁得이요 자는 仁教이고 호는 仁壽이며 본관은 안동입니다. 인동김씨는 신라 경순왕의 손자 공부시랑 숙승공을 시조로 모시고 있다. 공은 고려 천의령 송별공 휘 방경의 25세손이시며 고려충신 오은 인렴사공 휘 시림의 21세손입니다. 공께서는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에서 부 재연과 모 전주이씨 간 경자년 5월 10일 출생하시어 지체가 출중하시고 총혜명민(聰慧明敏)과 문신공행(聞信公行)하셨으며 유년가에도 처세에 탁월하여 적극명진(激昂名振)이더니 20세의 나이로 대한독립을 갈망하다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김육세등과 주권의 찬탈과정을 폭로하면서 대한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외치며 독립만세를 고창할것을 제안하고 다 같이 성양산에 올라 울분을 토하며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으니 때는 1919년 4월 8일이다. 공은 만세운동에 참여

한 지사들중 20세의 가장 어린나이라 내 나라 내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며 살아서는 살곳이 없고, 죽어서는 물일 땅도 없다. 이 원수를 갚지 않고 어찌할까! 각인은 동심일체 힘을 다하여 불구대천(不救戴天)의 원수를 갚아 내 나라를 독립하자! 만세를 고창하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고 모친 고통과 시련속에서 생활하시던중에 1921년에 부인 전주이씨와 결혼 1932년에 부석면 칠전리로 이사하시어 살하에 3남3녀를 두시고 생활하시다 1971년 6월 20일 당년 72세로 의로운 생을 다하셨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0년 3월 1일자로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과 동년 4월 21일자로 국가유공자 증서까지 추서되어 그의 높은 공적을 기리기 위해 북서면민의 이름으로 이 비를 세웁니다.

『2011년 7월 21일 북서면민 일동』

陽炎堂 金泰龍 先生 功績碑 除幕



행되었다. 준공식에는 한병기, 유재연, 김창환, 정진길 전 국회의원 등 다수의 외빈과 태영 전 익원공파종회장 등 서울, 청주, 내관 등에서 안동김씨 종친들이 참석하였고 태룡씨의 주관으로 2009년 준공된 내관 소재 진사공 재실 忠義齋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서울 지구에서 참석하신 인원은 귀경길에 신라시대에 놓였다는 진전에 소재하고 있는 농다리를 관람하였다.

按察使公派 進士公 宗회에서 6월 18일(토요일) 11시 충북 청원군 남이면 삼발리 先塋에서 김태룡 전 국회의원(대통령, 안렴사공파종회 고문,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 회장)의 공적비 제막행사를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慶會 前 大總統 副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제막행사는 慶會 進士公宗회 총무의 경과보고, 내·외빈이 함께한 제막, (冥)외회 박사의 비문낭독, 유재연 전 국회의원의 축사, 태룡 안렴사공파 종회장의 축사, 태룡 씨의 답사 순서로 진

행되었다. 준공식에는 한병기, 유재연, 김창환, 정진길 전 국회의원 등 다수의 외빈과 태영 전 익원공파종회장 등 서울, 청주, 내관 등에서 안동김씨 종친들이 참석하였고 태룡씨의 주관으로 2009년 준공된 내관 소재 진사공 재실 忠義齋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서울 지구에서 참석하신 인원은 귀경길에 신라시대에 놓였다는 진전에 소재하고 있는 농다리를 관람하였다.

진사공 종중 묘역 내에 세워진 공적비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구역 내에 모셔져 있던 선조님들께서 영면하실 묘역을 지극정성으로 조성하여 모신공로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민주화 국가유공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빛나는 업적을 후세에 알리고자 진사공파 각 문중에서 발의하여 건립한 것이다.

「경의 진사공종중 총무재공」

大韓民國 國會議員 安東金氏 進士公派會長 陽炎堂 金泰龍 先生 功績碑

歷史의 흐름은 現實政治의 기복에 따라 時代가 變遷하는 큰 人物이 등장하는데 太古時代는 광범한 德將이 있을뿐 이고 암흑시대는 영웅적 勇將과 烈士가 등장해서 改革을 마삼으로 歷史를 다시 쓰는 것이다. 陽炎堂 金泰龍先生은 모든 백성이 열망하던 大韓民國民主化를 위하여 平生동안 투쟁하셨고 정취하신 이 時代가 요청한 큰 人物이다. 高麗末安東金氏 按察使公派會長은 杜門賢 七十二賢의 한인으로 不事二君하셨다. 선생은 안렴사공의 二十一代宗이며 進士公派의 十六代宗이다. 진사공계에서는 靜庵趙光範선생의 弟子로 一五一九 年에 己卯土氣가 일어나자 鷄籠山 巔기의 골짜기인 蔚岾郡 蔚岾面 蔚岾里 蔚公州 蔚岾으로 은둔하시어 낙향조가 되었다. 五百餘年동안 세거하였던 이곳은 鎭江이 감싸안은 飛鳳鎭形으로 부귀영화를 상징하여 평화롭게 살아온 터전이다. 先生은 父親 光會와 母親長興高氏의 차남으로 1934年에 출생하시니 본관은 安東이며 호는 陽炎堂이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감직하여 不義를 보면 참지 못하셨다. 일찍이 학문에 정진하여 大丘高等學校를 졸업하고 忠南大學校를 首席으로 나와 高麗大學校大學院을 거쳐 忠南大學校 教授로 재직하시다 國會議員으로 當選되어 政界에 진출하셨다. 第一選鬪이었던 新民黨과 民主黨에서 代議人을 세차례나 역임하셨고 민주국민당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하는등 큰 활동을 펼치셨다. 민주화를 위한 선봉적 鬪爭으로 여러번의 獄禁을 치르는 아픔을 지치하며 끝내 民主化를 성

공시키셨다. 民主化國家有功者로서 大韓民國民主憲政史에 찬란히 빛나고 있다. 韓先生은 孝悌忠의 집안에서 성장하여 先翁의 遺業을 이어받아 위신사업에 熱과 誠을 다하여 蔚岾郡 蔚岾의 先塋에 忠義齋를 建立하셨다. 祖上代로 살아온 眞起先塋이 國家大事業인 世宗王 建실로 수용되자 先翁님을 좋은곳에 모시기 위해 수십곳의 新山을 踏查하셨다. 山巔秀麗한 忠北 淸原郡 南二面 上林里에 安東金氏進士公派 墓苑을 至聖神誠으로 훌륭하게 조성하여 十八代用以下數十名의 墓所를 藹藹하고 아울러 進士公묘역부근의 王長慶(당시 韓國하신 無名 勇士墓所 二十여기를 發掘하여 合同墓를 만들어 모시고 風化하는 일에 率先捐軀하시니 작계자손들은 물론 他姓氏들까지 감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安東金氏大宗會副會長로서 按察使公派의 首都慶宗會를 창립하여 會長으로 景福宮의 화복을 든독히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매사의 솔선수범은 宗親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蔚公宗會로 선생을 稱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進士公派宗中과 內板 井博會會長 葛志 井興 歌會長 慶會會長등이 발의하여 功績碑를 세우고자 결의 하였습니다. 항상 존경해왔던 선생의 공적비문을 쓰게되니 감개무량할 뿐이다. 進士公派 여러 宗親계 고아들과 敎養을 표하며 자손안대에 걸쳐 忠孝節義精神이 더 크고 더 높게 이어지길 바랍습니다.

西曆 二十一年 新曆 三月 日
安東金氏 陽炎堂 按察使公派 宗會
按察使公派 蔚岾郡蔚岾里 蔚公州 蔚岾
安東金氏 大宗會副會長 景福宮 副會長
安東金氏 進士公派 內板 井博會 副會長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 제4회 정기총회 개최



설립 목표 달성에 힘쓰자고 하였다. 봉회 대총회장은 축사에서 수도권종회를 창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달라고 하였고 중북 관서공파종회장은 축사에서 다 같이 단결하고 화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종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는 제4회 정기총회를 지난 6월 11일(토요일) 11시 서울 특선 소재 서울숲에서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용주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국민의례, 인사소개, 회장인사, 내빈축사, 안건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봉회 안동김씨대총회장, 중북 안동김씨관서공파종회장, 태룡 안렴사공파종회장, (文)재호 원로종친, (郡)재구 관서공파 재부이사, 재성안렴사공파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축하해주었다.

태룡 회장은 인사말에서 종회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자면서 특히 기금확보에 노력하여 본 종회

다며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어 안건토의에서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시 현성근내여은 아래와 같다

- 30만원 안렴사공파종회
- 10만원 안동김씨대총회, (郡)蔚岾大總會, (郡)蔚岾關西公派宗會, (按)정일, 규창,
- 5만원 (文)재호
- 奉會 首都慶宗會 蔚公州 蔚岾 기념타물 100개

「용주 안렴사공파수도권종회 총무재공」

안렴사공 묘소 참배



▲당진종친회 참배단

2011년 3. 2 괴산군 청천면종친회 (회장 김태현) 회원 30명이 안렴사공 묘역을 참배하였고 2011년 6.15 충남 당진군종친회 (회장 김재진) 회원 40명이 안렴사공 묘역을 참배하였다

특히 당진종친회 고문 (冥)용세 (容世) 종친은 당진군 신령면에서 선대(부친 순식)로부터 신령양조장을 경영하면서 하얀연꽃과 당진쌀

를 원료로 사용한 "하얀연꽃 백련막걸리"를 생산 판매하여 이들을 팔치고 있고 3대인 동고도 현재 기술을 연마하고 있어 3대에 걸쳐 막걸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당일 참배시 위 임조장에서 만든 하얀연꽃 백련막걸리를 제주로 물렸다.

안렴사공 묘역에는 왼쪽부터 안렴사공의 할아버님 경간공(尙副公 偉 永獻), 영삼사사공(領三司事公 諱 諱)의 단소와 맨오른쪽에 안렴사공 묘소가 모셔져 있고 안렴사공 묘소 아래쪽에 재실인 영모재(永 禧 齋)가 있고 영모재 오른쪽에 관리사가 있으며 관리사에서 입구쪽에 안렴사공 신도비가 있다.

「당진종친회 재정부장 재공」

회보의 원고를 보내주시고, 내용은 선조에 대한 것이면 더욱 좋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떠한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또한 협찬하실분 연락 주시면 성심껏도와 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 : 재명, 재용, 재성, 철희, 주희, 태영, 흥희, 태준

회보 원고접수

보낼곳 : 안렴사공파종회
충북 청원군 오청읍 청리 2-3
TEL : (043) 218-2158
FAX : (043) 212-2158